

기아, 첫 픽업트럭 '타스만' 공개...내년 상반기 출시

미국·스웨덴·호주·중동 등서 4년 넘는 기간 투자 개발한 야심작
대담하고 간결한 디자인...강인한 이미지·기능적 요소 조화 이뤄
적재 공간 등급 최대 수준인 1173 l ...최대 700kg까지 적재 가능

기아의 첫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이 마침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다.

기아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2024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타스만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타스만은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 (Dive into a New Dimension)한다는 주제 아래 고객의 일과 휴식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목적으로 탄생한 중형 픽업 트럭이다.

기아는 타스만 개발을 위해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스웨덴, 호주, 중동 등의 지역에서 4년이 넘는 기간을 투자했다.

총 1777종의 시험을 1만8000회 이상 진행해 오프로드 특화 성능과 내구성, R&H(주행과 핸들링), 트레일링 안정성, 도하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먼저 타스만의 외관은 픽업트럭의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결하게 디자인했고, 그 결과 강인한 이미지가 강조됐다. 타스만의 전면부는 가로로 긴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가 탑재됐고, 후드 상단의 가니시와 그릴 테두리로 기아의 패밀리룩인 '타이거 페이스'를 형상화했다. 여기에서 수직 형상의 시그니처 램프가 좌우로 배치됐다.

측면부는 45도 각도로 모서리를 다듬어 기하학적

인 조화를 꾀했다. 후면부는 하단 범퍼 모서리에 적재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너 스텝을 적용했다.

타스만의 실내에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 기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특히 기아는 2열 시트를 뒤로 기울이기 어려운 중형 픽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등급 최초로 2열 좌석에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했다.

타스만은 오프로드와 온로드 주행 성능을 모두 개선해 탑승감도 향상시켰다. 차량은 가솔린 2.5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81마력(PS), 최대 토크 43.0kgf·m을 확보했다.

또한 샌드, 머드, 스노우 모드에 더해 인공지능이 노면을 판단해 적합한 주행 상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도 탑재됐다.

오프로드 성능과 관련해서 흡기구가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 내부 상단에 적용돼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을 확보했다.

아울러 냉각 개구부를 확대하고, 고성능 냉각 팬을 적용하는 한편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towing) 성능도 갖췄다.

타스만은 온로드 주행 성능에도 신경을 썼다. 기아는 타스만에 사시와 프레임 접합부에 분리형과 일



기아가 최초로 선보인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 내·외관. 기아는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에 선보일 계획이다. <기아 제공>

체형 마운트를 함께 사용해 긴급 조향 상황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을 줄여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후륜 유압식(HRS) 속업소비에 주파수 감응형 밸브를 적용하고 길이를 최적화해 주행 진동을 최소화했다.

여기에서 다중골격 구조를 적용해 차체 비틀림 강성도 확보했다.

넓은 적재 공간은 타스만의 장점 중 하나다. 타스만의 적재 공간은 길이 1512mm, 너비 1572mm, 높이

540mm 규모로, 베드 라이너와 차체를 최대한 밀착시켜 적재 용량을 최적화했다.

타스만은 등급 최대 수준인 약 1173L의 저장 공간에 최대 700kg을 적재할 수 있다. 한국 기준 표준 팔레트(1100x1100mm)도 수납이 가능하다.

기아는 타스만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 사양도 적용했다.

기아는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는 고객을 위해 'X-Pro(프로)' 모델도 운영한다.

X-Pro 모델은 프론트 언더커버, 17인치 전용 휠, 올-테레인 타이어가 적용됐고, 기본 모델 대비 28mm 높은 252mm의 최저지상고를 갖춰 험준한 지형 주행에 유리하게 디자인됐다.

기아는 타스만을 내년 상반기 국내를 시작으로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기아, 국내 3대 신용평가 나란히 최고 등급 'AAA'

글로벌 3대 평가사도 '올A'

현대차·기아가 국내 주요 신용평가 회사 3곳에서 모두 최고의 신용 등급을 획득했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차의 신용 등급을 지난 1일 20개 신용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AAA'로 상향했다. 한국기업평가가 현대차의 신용 등급을 높인 것은 지난 2019년 11월(AA+) 이후 5년 만이다.

현대차의 신용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됐다. 현대차는 앞서 한국기업평가와 함께 국내 3대 신용평가 회사로 꼽히는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서도 각각 지난 4월과 9월 최고 등급

인 AAA 신용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기아는 지난 1일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A 신용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9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A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성과다.

기아가 국내 3대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모두 최고 신용 등급을 받은 것은 창사 이래 80년 만에 처음이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기아의 이번 등급 선정 배경에 대해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와 개선된 제품 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업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시장 변화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들어 미국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영국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에서도 모두 높은 신용 등급을 획득했다. 이들 3개 회사는 현대차·기아를 묶어 신용평가를 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월 무디스와 피치에서 A 등급을 받은 지 6개월 만인 지난 8월 S&P 신용 등급도 A로 올랐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아, 연식 변경 모델 '더 2025 K5' 출시

안전·편의사양 확대 적용

기아가 4일 "중형 세단 K5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K5'(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 2025 K5는 트림별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전·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2.0 가솔린 모델에 신규 트림인 '스마트 선택선'을 추가해 가격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더 2025 K5의 전제 트림에 선바이저 LED 조명과 글로브 박스 LED 조명, 뒷좌석 발 매트 고정 고리, 실내 소화가 등을 기본 장착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선택 사양으로 운영되던 스티어링 휠 경고와 가죽 및 열선 스티어링 휠을, 노블레스 트림에는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을 각각 기본으로 탑재했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와 뒷좌석

측면 수동 선택튼이 기본으로 추가됐다.

더 2025 K5에 새롭게 추가된 스마트 선택선 트림은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의 일부 사양을 간소화하고,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과 전면 범퍼 하단 인테이크 그릴, 전·후면 버티컬 워,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을 개선했다. 또 전용 외장 색상인 '글래시어'를 추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커넥티비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기아는 영업용 차량 고객을 위해 택시로 판매되는 2.0 LPI 렌터카 모델의 상품성도 강화했다.

2.0 LPI 렌터카 모델의 엔트리 트림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고, 운전석 파워 시트, 열선·진동경고 기능이 포함된 콤포트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수소의 날 맞아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선보여

현대자동차는 최근 서울 반포 세빛섬 가빛 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수소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INITIUM)'(사진)을 선보였다. 이니시움 현대차가 27년간 연구한 수소전기차 기술 집약체로, 지난달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차량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니시움(INITIUM)은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이다. 사진은 기념식 행사장에서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현대자동차 전동화에너지사업부 담당 김창환 전무가 이니시움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현대차 제공>

토요타 9세대 캠리 하이브리드 사전예약...26일 국내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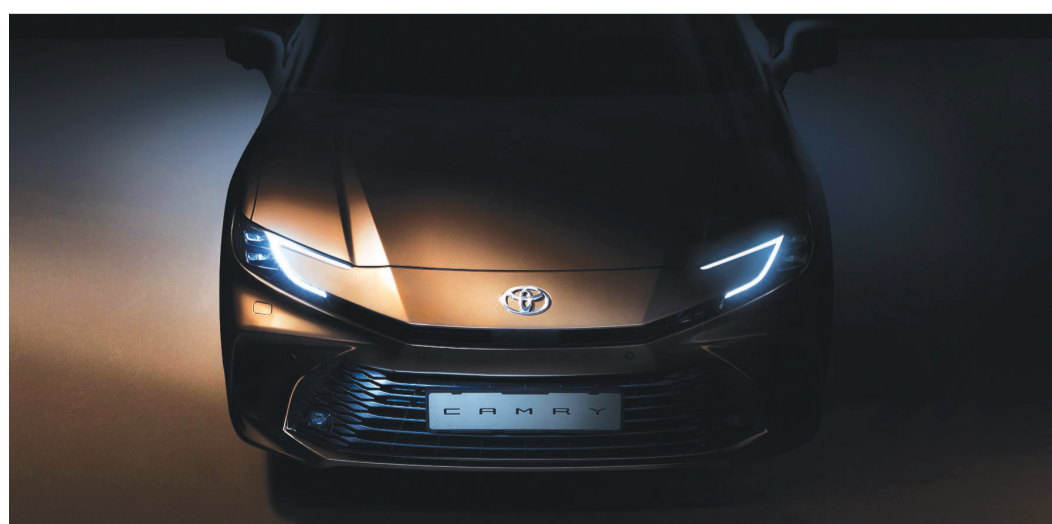
토요타 코리아는 4일 "2025년형 캠리 하이브리드(HEV)(사진)를 오는 26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형 캠리 HEV는 9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토요타 최신 디자인을 반영했으며, 상품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토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5세대 'THS'가 탑재돼 기존 모델 대비 출력이 개선됐다. 차량은 XLE 그레이드와 XLE 프리미엄 그레이드 2가지로 출시되며, 전8량 일본에서 생산된다.

캠리 HEV 권장소비자가격은 ▲XLE 그레이드 4800만원 ▲XLE 프리미엄 그레이드 5360만원이다.

강대한 토요타코리아 부사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2025년형 캠리 하이브리드는 고객이 세단에 기대하는 본질적인 가치인 품질, 내구성, 신뢰성 등 기본기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모델"이라며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11월 한 달 할인 쿠폰·상품권 증정

현대자동차가 CJ올리브영과 11월 한 달 캐스퍼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올리브영 회원 모두에게 11월 특별기획전에서 더 뉴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 구매 시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을 사용해 차량을 출고한 고객 300명에게는 추가로 올리브영 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한다.

쿠폰은 올리브영 앱과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11월 특별 기획전을 통해 차량을 계약해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11월 특별 기획전은 차량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캐스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올리브영 온라인몰 첫 구매 고객이 3만원 이상을 구매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품 추첨을 통해 ▲1등 더 뉴 캐스퍼(1명) ▲2등 호텔 숙박권(2명) 등을 제공한다.

4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 1000명에게는 첫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캐스퍼 일렉트릭.

폰을 증정된다.

현대차는 올해 7월 캐스퍼 전동화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했다. 1회 충전시 315km 주행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이어 10월 캐스퍼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캐스퍼'를 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의 젊고 새로운 이미지가 올리브영의 주 고객층인 2030 세대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